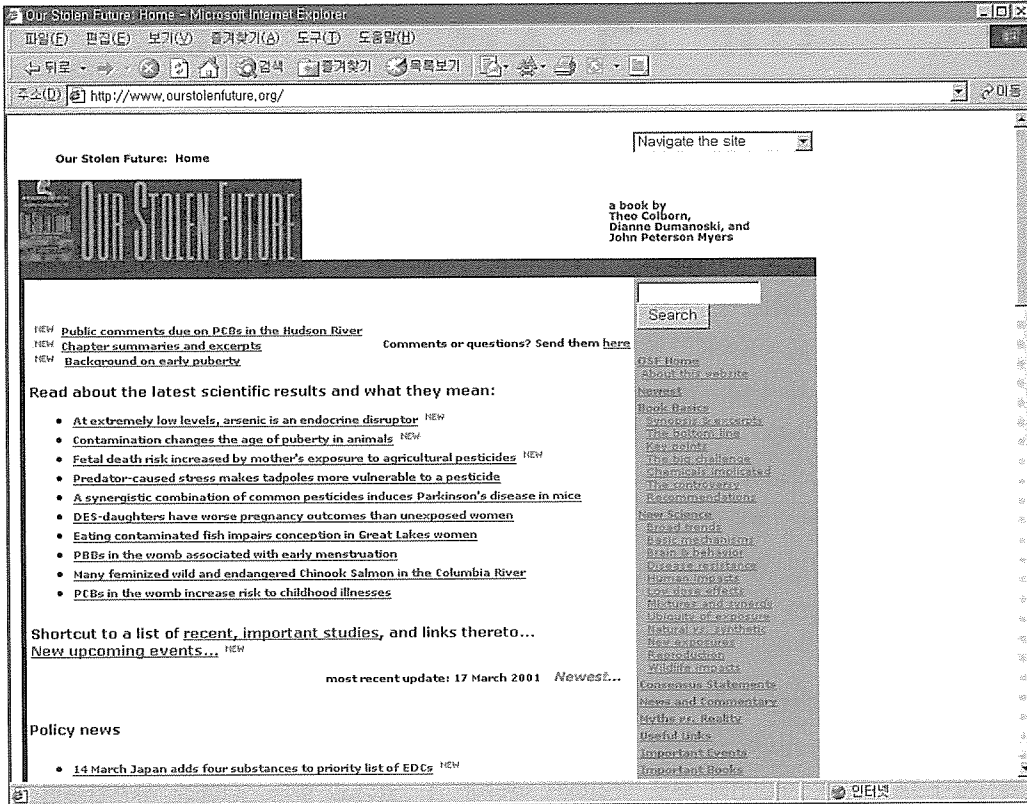


우리들의 도둑맞은 미래 (www.ourstolenfuture.org)



이트다. 생물학을 전공하는 두명의 과학자와 보스턴 글로브지의 환경담당 기자가 쓴 「도둑맞은 미래」는 서문을 열고 어 전 미국 부통령이 썼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다.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제 2의 침묵의 봄이라 부르기도 한다.

이 사이트에는 「도둑맞은 미래」의 책 내용과 함께 최근의 환경호르몬 관련 사고일지, 환경호르몬이 인체 각 부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종 과학 연구, 관련 도서, 인터넷 사이트들이 체계적으로

1962년 레이첼 카슨은 「침묵의 봄」이라는 책을 통해 모기를 죽이기 위해 살포한 DDT가 새들을 죽음에 이르게 해 봄이 와도 새소리를 들을 수 없는 침묵의 봄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. 이 책은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바이블이 됐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유명하다.

DDT는 이 책이 나온 후로 사용이 금지됐다. 그러나 이미 자연에 뿌려진 DDT는 「침묵의 봄」이 나온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다시 악명을 떨치게 됐다. DDT의 분해산물이 생물의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켜 생식기 계통의 이상을 가져와 결국 개체수를 감소시키기에 이르렀다. DDT 외에도 PCB, 다이옥신 등 여러 화학물질들이 생물의 호르몬 분비체계를 혼란시켰는데 이런 물질을 환경호르몬이라 부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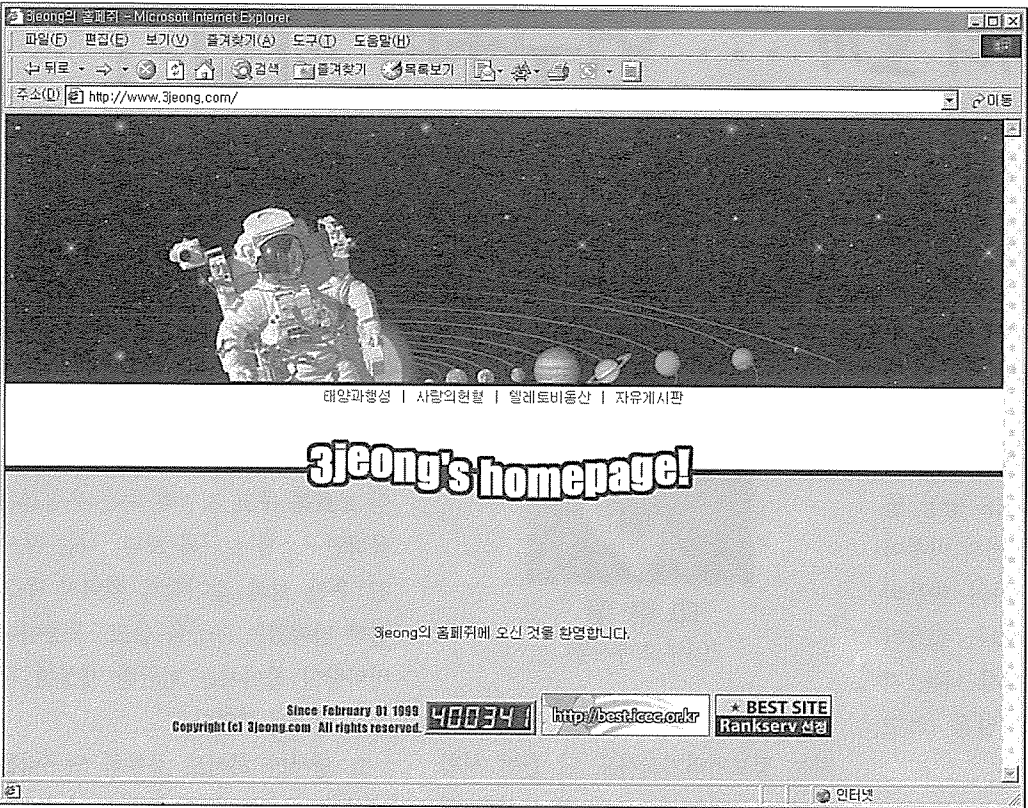
ourstolenfuture.org는 환경호르몬의 위험을 경고한 책인 「도둑맞은 미래」를 쓴 테오 콜본, 다이앤 듀마노스키, 존 피터슨 마이어 등이 책 제목과 같은 이름으로 만든 사

정리돼 있다. 또 각국의 환경호르몬 정책들과 최신 기사들도 체계적으로 정리돼있어 환경호르몬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꼭 둘러보아야 할 사이트이다.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각종 식품에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환경호르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.

그러나 환경호르몬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. 몇년 전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남자들의 정자 수가 줄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환경호르몬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지만 그 전부터 악어, 독수리, 물개 등 많은 생물들이 성이 바뀌고 알 껍질이 주는 등 결정적인 피해를 겪어 왔다. 또 환경호르몬의 영향은 이미 2~30년 전에 자연에 방출된 화학물질 때문인 것을 보면 왜 책 제목이 「도둑맞은 미래」인지를 알 수 있다. 이대로 가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빼앗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.



별들과 텔레토비, 그리고 사랑의 헌혈 (www.3jeong.com)



자유게시판에는 대부분 천문우주관련 질문들이 올라오고 집 주인의 정성스런 (전문가 수준의) 답이 올라 있지만 곳곳에 헌혈의 의의에 대해 동감하는 말들과 텔레토비의 귀여운 모습에 반했다는 이야기도 올라온다.

태양과 행성에는 우리 태양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집 주인의 부지런함으로 모은 화려한 사진과 동영상 어우러져 청소년들에게 이만한 천문우주 사이트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.

주인의 부지런함은 매일매일 각 매체를

3jeong.com에 들어가면 우주인이 별들이 가득 찬 우주 공간에서 유행하는 사진이 먼저 들어온다. 당연 과학 사이트나 천문우주관련 사이트로 생각할 수 있다. 그런데 이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.

메뉴를 보면 태양과 행성, 사랑의 헌혈, 텔레토비동산, 자유게시판으로 구성돼 있다. 아니 웬 텔레토비? 또 헌혈은 뭘까?

과학을 주요 테마로 잡은 개인 홈페이지에 가면 말 그대로 과학이 가득하다. 그러나 이런 형태의 사이트는 과학에는 충실하지만 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의 집이란 생각은 하기 힘들다. 웬지 어느 한쪽 방만 본 느낌이기 때문이다.

이에 비해 3jeong.com은 집 주인이 좋아하는 별 이야기와 아마도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토비동산, 그리고 집 주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헌혈 이야기가 어우러져 오히려 과학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.

통해 소개되는 천문우주 기사를 갈무리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. 기사는 그대로 실고 있지만 신문지면 관계상 사진이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 항공우주국 등 관련 사이트를 찾아 꼬박꼬박 관련 사진, 동영상을 함께 게재하고 있다.

헌혈 코너 역시 단순히 심정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왜 헌혈을 해야 하는지, 혈액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한다. 또 텔레토비동산에서도 각종 퍼즐, 퀴즈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기에 그만이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집 주인은 사랑스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는 생각이 든다. 최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. ㉟

李永完 (동아 사이언스 기자)